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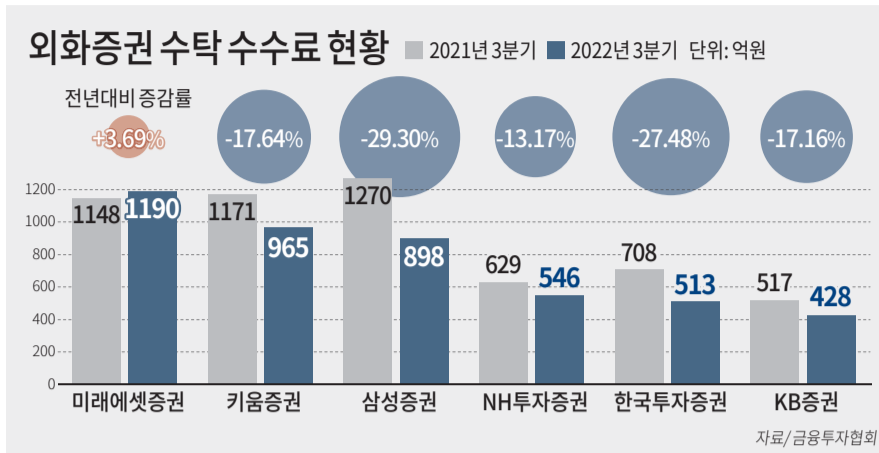
# 발 빠는 서학개미... 증권업계, 외화증권수탁 수익 급감

세계 증시 약세에 투자수요 둔화  
1년새 수수료 수익 700억 이상 ↓  
증권사, 서비스 강화로 반전 모색

증권업계의 외화증권수탁 수수료 수익이 1년 새 700억원 이상 급감했다. 지난해 유동성 장세에 힘 입어 호황을 누렸던 세계 증시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시장을 떠나는 상황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4곳(12월 결산법인)의 올 3분기까지 외화증권수탁 수수료 수익은 55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332억원을 기록한 것과 달리 1년새 11.59% 감소하면서 734억원 줄어 들었다.

특히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활발했던 대형사들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다. 지난해 말 기준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가 가장 많았던 삼성증권은 올 3분기까지 외화증권수탁 수수료가 898억원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270억원) 대비 29.30%(372억원) 가량 줄었다.

또한 지난해 외화증권수탁 수수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키움증권 -

207억원(-17.64%) ▲한국투자증권 - 194억원(-27.48%) ▲NH투자증권 - 82억원(-13.17%) ▲KB증권 - 88억원(-17.16%) 등이 1년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불안정한 업황 속에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선방하면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미래셋증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상위권에서 유일하게 소폭 증가했다. 올 3분기까지 해당 수수료 119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었다. 또한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처로 지난해 1위 자리를 삼성증권에게 내줬지만, 올해는 선두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스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선보인 해외주식 서비스가 호응을 얻으면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중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주식 서비스 매출이 전체 30%를 차지했으며, 올 들어서는 매분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실시간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등 해외주식에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게 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토스증권 측은 설명했다.

국내 주식투자자의 해외증권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증권사의 관련 수수료 수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증권 보관잔액은 10월 기준 807억7567만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722억1740만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외화주식 결제 금액 역시 줄면서 190억달러대로 내려앉아 지난 1월(323억9200만달러) 대비 반토막 가까이 하락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해외주식 관련한 서비스 강화에 나서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모바일 증권거래 서비스 나무증권 등을 통해 국내/해외 소수점 적립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해 주식 시장 대처에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데, 소액으로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소수점 적립식 서비스가 대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차이나런' 훈풍 부나... 外人, 국내증시 노크

(차이나+뱅크런 합성어)

10월 이후 5조9473억 순매수  
2차전지, 반도체 등 대형주 수혜

10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순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전후해 중화권을 이탈한 이른바 '차이나 런(차이나와 뱅크런의 합성어) 자금이 적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반도체, 2차전지 등 대형주가 일차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으나, 유입추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하반기 순매수 전환한 '외국인', 코스피 상승 이끌어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하반기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피(ETF·ETN·ELW 제외) 시장에서 9조795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매수세로 전환했다. 지난 상반기 16조1768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과 대비된다.

특히 지난 10월 이후 5조9473억을 순매수하며, 코스피 지수 반등의 주요 수급원으로 등극했다. 이 기간 개인은 6조1834억원, 기관은 1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들은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이후 외국인은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9950억원, 846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

종목명	순매수 금액
삼성전자	1조9950억
LG에너지솔루션	9770억
삼성SDI	9480억
SK하이닉스	8460억
KT&G	2170억
삼성전기	213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1850억
삼성전자우	1620억

기간: 10월 1~11월 16일, 단위: 원 /한국거래소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 반도체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당이 선전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국내 증시가 상대적 수혜를 받는 배경이 되고 있다.

◆차이나 런, "반등 추세 유지 힘들어"

차이나 런 반사이익의 결과는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인 중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한국 등 신흥국 투자 비중을 늘렸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8월 기준 컨실팅된 비즈니스 모델(BM) 비중에서 보면 중국의 비중은 35.4%에서 17.7%로 급감한 반면,

한국은 11.2%에서 14.3%로 비중이 늘었다. 이 퇴직연금은 운용 규모가 987억 달러에 달한다.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7월 이후 누적 외국인 자금 유입은 인도 89억 달러, 한국 72억 달러 순으로 확인된 반면, 중국 -96억 달러, 대만 -114억 달러로 중화권 증시 이탈 현상이 부각됐다"며 "한국 증시는 2020년 이후 아시아 신흥국 중 낮은 가격 부담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인도의 경우 구조적 환경 변화가 체감되는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처럼 미국 주정부들이 운영하는 연기금들의 벤치마크 변경이 확산하고 있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며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한 전술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면 중국 매도-한국 매수 양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탈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반등은 추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반등을 이끈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지난 주 들어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수 상승의 둔화 시그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글로벌 위탁연구기관 전문기업 도약"

IPO 간담회

바이오인프라

2018년~2021년 매출 CAGR 43.5%  
공모가 밴드 2만3000원~2만6000원

"바이오인프라는 검체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준비된 글로벌 위탁연구기관(CRO)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상득 바이오인프라 대표이사가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7년에 설립된 바이오인프라는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에서 개발사의 의뢰를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CRO 전문기업이다. 바이오인프라는 숙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시설을 운영하며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GCLP) 및 비임상시험실 시기관(GLP)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자체 분석센터를 통해 다양한 임상·비임상시험의 요구에 최적화된 분석 서비스를 GCLP 및 GLP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제공하고 있다.

바이오인프라는 분석 시스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식약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승인 건수 기준 시장점유율 1위(23.6%)를 유

지하고 있다. 회사는 국내 제약사(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다국적 제약사, 대기업 계열(SK케미칼, LG생명과학 등) 등 다수의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했다.

지난해 바이오인프라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306억원, 영업이익은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8%, 105.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4.2%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225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이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연평균성장률(CAGR)은 43.5%에 달한다.

바이오인프라는 공모를 통한 신규투자 확대 및 사업 고도화로 성장을 이어가고, 동시에 글로벌 CRO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인프라는 200건 이상의 검증된 분석법과 600건 이상의 생동성 시험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검체 분석 및 데이터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2023년 완성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인프라의 총 공모주식 수는 100만주다. 공모 희망가 범위는 2만3000원~2만6000원이다. 공모 금액은 약 230억~260억원 규모이다. 11월 16일~17일 양일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 22일~23일 일반 청약이 받는다. 연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원관희 기자 wkh@

## DL이앤씨, 6600억 규모 美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DL이앤씨가 미국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서(FID)를 발주처로부터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 공사 금액은 약 1조6700억원(12억6000만 달러) 규모로 DL이앤씨의 미국 현지법인인 DL USA가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Zachry Industrial)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DL USA의 수주 금액은 약 6600억원으로 설계와 주요 기자재 구매를 담당한다. 현지 시공과 벌크 자재 구매는 자크리 인더스트리얼이 담당한다. 현장은 미국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의 접경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휴스턴에서 동쪽으로 180km 떨어져 있다.

이번 사업은 미국 쉘브론 필립스 케미컬과 카타르 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 사가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쉘브론 필립스 케미컬이 진행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는 올해 착공해 오는 2026년 내 상업운전이 목표다. 연간 100만톤 규모의 폴리 에틸렌 생산 유닛 2기로 구성된다. 유닛당 생산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김대환 기자 kdh@

## "넌뛰는 증시 부담"... '월배당' ETF 각광

"꾸준한 현금 배당, 매력 포인트 작용"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매달 꾸준하게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고 있다.

17일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출시한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가 하반기 출시된 ETF 중 상장당일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장 당일인 지난 15일에만 83만575주가 거래됐으며, 개

인이 총 28억원을 매수했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에서 매수된 금액까지 더하면 약 35억원 이상 개인 순매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이 가능한 점이 투자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